

# 전통시장의 장소성 기록화를 위한 구성요소 제언\*

## Suggestions for Archiving Elements for Placeness of Traditional Markets

박 은 영 (Eun Young Park)\*\*

이 성 신 (Seongsin Lee)\*\*\*

### 목 차

- |                    |                         |
|--------------------|-------------------------|
| 1. 서 론             | 3.2 대구 북성로 공구거리 '공구박물관'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광주 대안예술시장 아카이브 D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4 사례 요약 및 시사점         |
| 1.3 선행연구           | 4. 전통시장 장소성 기록화 구성요소 제언 |
| 2. 이론적 배경          | 4.1 대중적 기능과 관련한 요소      |
| 2.1 장소 및 장소성의 의미   | 4.2 역사·문화적 기능과 관련한 요소   |
| 2.2 전통시장의 정의와 기능   | 4.3 경제적 기능과 관련한 요소      |
| 3. 전통시장 기록화의 사례    | 4.4 행정적 기능과 관련한 요소      |
| 3.1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 | 5. 결 론                  |

### <초 록>

본 연구는 전통시장이 갖는 경제적, 대중적, 행정적, 역사·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무형 관련 자료의 기록화를 위한 구성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조사와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 광주 대안예술시장 아카이브 프로젝트 D, 대구 북성로 공구 박물관의 기록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물리적 환경, 사회적 요소, 경험/인물요소를 전통시장의 장소성 구성요소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대중적 기능, 역사, 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기록화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전통시장, 장소성, 장소성 요소, 시장 기능, 기록화 요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pecific elements for archiving tangible and intangible materials based on popular, administrative, historical, and cultural functions of traditional markets. Related literature was thus reviewed and the cases of Seoul Yangnyeongsi Story Archive, Gwangju Dae-An Yesul Market Archive Project D, and Daegu Bukseong-Ro Gonggu Museum were analyz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elements of physical environments, social factors, experience, and people were defined as the placeness of traditional market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specific elements to archive traditional markets were thus suggested.

Keywords: traditional markets, place, placeness, markets' functions, archiving elements

\* 본 논문은 박은영의 석사학위논문 「전통시장 장소성의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2017)을 요약·수정한 것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eypark238@naver.com)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eess@k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8년 4월 20일 ■ 최종심사일: 2018년 4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5월 18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61-83, 20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2.06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래 옛날부터 인간은 재화를 교환 또는 판매하고 필요한 재화와 잉여재화를 분배하는 경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밀집되어 일어나는 장소로써 시장이 탄생하였다. 그러므로 시장의 발전이 인간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더 나아가 시장은 개인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업,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더불어 시장은 금융, 정보교류, 사고, 문화, 오락/관광 등이 가능한 사회적 장소로 진화하였다(이용선 외, 2007, p. 54). 따라서 시장은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상호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적 장소로 간주될 수 있다. 시장에 대하여 상인들과 이용자들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한다. 비록 오늘날 시장의 사회적 기능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유효하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기능은 현대의 유통업체 환경과는 다르며, 수평적이고 길게 늘어난 가로(街路)체계를 통해 작동된다. 특히 재래식 시장의 경우 건물보다 장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김성훈, 2006, p. 22).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장소는 인간 생활의 변화, 사회문화적인 변화,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사라지고 변형되어, 장소에 대한 기억은 빠르게 단절되고 있다. 전통시장 역시 유통산업의 변화, 시설 노후화, 위생, 안전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줄어들며 본래 기능이 약화되었다. 특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로(街路)

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에서 현대식 건물로 교체되어 과거의 모습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시장은 상거래장소로 수익성을 기준으로 현대유통산업에 버금가는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전통시장 고유의 사회, 경제적 가치 및 옛 모습은 변질되어가고 있다.

전통시장 관련 유·무형 자료의 기록화는 시장의 외형,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기억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화 과정은 가로, 건물, 시장의 변화 이력, 사건, 사고, 인간의 경험 등의 자료를 통해 흩어져있던 시장의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그 맥락을 나열하여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더 나아가 기록화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콘텐츠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장소적 가치로서의 특수성 및 특별함을 인식하고 시장의 장소성 요소를 도출하며 이와 더불어 시장이 갖는 경제적, 대중적, 행정적, 역사·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무형 관련 자료의 기록화를 위한 구성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장소성 요소를 도출하고 이와 더불어 시장이 갖는 경제적, 대중적, 행정적, 역사·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을 기록화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장소, 장소성, 전통시장 등의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사전적, 법률적 정의를 정리하고, 전통시장의 기능 및 장소성 요소를 정리 및 제시한다.

둘째, 전통시장 기록화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 광주 대인예술시장 아카이브 프로젝트 D, 대구 북성로 공구 박물관의 기록화 사례들의 기록화 과정, 기록화요소,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통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화 요소와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된 요소들을 참고하여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무형관련 자료들의 기록화를 위한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 1.3 선행연구

기록학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마을 등을 기반으로 민간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장소와 관련한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다만 장소가 지역, 마을 등의 지리적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록학계의 로컬리티 기록화, 마을 아카이빙 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문원(2011)은 Cox모형의 한계를 극복한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해 국내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접근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각각의 장소를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서비스 가능한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서 발전하여 설문원(2012)은 Cox

등이 주창한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과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모형을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로컬리티 기록화의 새로운 패러다임-활용성, 재현성,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을 정립하였다. 더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이 축적되고 활용되기 위해 spanDoc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설문원과 김정현(2013)은 후속연구에서 부산지역 동해남부선의 기록화에 spanDoc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로컬리티 기록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보옥(2012)은 장소성의 재현을 목적으로 골목의 기록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소성의 구성요소를 물리적 요소, 활동, 인물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장소성의 재현요소로는 공간, 시간, 장소성으로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장소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위해 다양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록화 요소와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초기모형인 Cox(1996)의 기록화 모형은 지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농업, 예술과 건축, 사업·산업·제조업, 교육, 환경문제·자연자원, 노동, 의료·보건, 국방, 정치·정부·법, 인구, 레크레이션·여가, 종교, 과학·기술, 사회조직·사회적 활동, 교통·커뮤니케이션 등을 제시하였다. 권순명과 이승희(2009)는 기록화 요소를 지역문화(주민, 공동체, 종교), 지역역사(역사적 발전, 사회상), 지역사회(경제, 행정·정치, 교육), 지역공간(지리·풍경, 건물)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는 공적기록(일상적인지 업무나 행사와 관련된 기록)과 사적기록(비일상적인 것에 대한 기록)으로 나누어 기록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문원(2012)은

종래의 콕스 등의 구성요소가 광범위함을 지적하며, 공간/장소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 인물, 사건을 기록화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여진원과 장우권(2015)은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시 기록화 구축에 활용될 구성 요소를 분야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6개 분야(자연환경, 인문환경, 역사와 문화, 사회와 교육, 산업과 경제, 교통과 통신)에서 32개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소 및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장소기록화에 대한 연구 특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화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장소성의 기록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장소 및 장소성의 의미

우선 장소에 대한 논의는 지리,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이 갖는 장소로서의 특별함, 즉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유·무형 자료의 기록화 방안을 탐색한다. 따라서 장소 및 장소성과 관련한 용어들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장소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어떤 일'의 발생은 인간 활동을 기저로 한다. 그러므로 사전적 정의는 장소를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그 공간의 쓰임을 인간이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정의한 것이다. Steele(1981, p. 5)에 의하면 장소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위치, 심리적 상태, 사회적 지위, 심리적인 위치, 평가의 기준 등을 의미한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장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로만 정의되지는 않는다. Lukermann(1964/2004, p. 28)은 위치, 자연과 문화적 요소의 통합, 역사·문화적 변화, 인간 행위에 의한 의미 등이 장소의 요소라고 하였다. 그러나 May(1970/2004, p. 28)는 지각적 측면에서 통일성을 갖춘 공간, 즉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을 경험하고 그것을 구분하여 생각하게 되는 공간을 장소라고 하였다. Tuan(1976/2007)에 따르면 공간은 추상적이며 장소는 구체적이다. 그에 따르면 추상적 공간에서의 오랜 시간동안의 사소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은 그 공간을 안정적인 장소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는 문학작품, 예술, 건축, 의식 등의 수단을 통해 가시화된다고 하였다. Relph(1976/2005)는 Tuan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소를 고찰하여,<sup>1)</sup> 장소를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중심이며,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의해 정의되고,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한편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이석환과 황기원(1997, p. 181)이 어의 고찰을 통해 장소를 물리적, 활동적, 상징적 국면의 복합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장소의 측면에서 장소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이며, 인간의 측면에서는 울타리 내부로서의 환경, 지각·실

1) Relph는 Tuan 등의 장소에 대한 고찰은 현상학적 관점의 지리학이라 표현하였다.

존 공간, 상대적 위치 및 시간, 경관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설명되는 중층 결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어정연과 여홍구(2011, pp. 21-34) 역시 장소의 형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소는 물리적 실체와 인간 행위의 결합물이며, 상징적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자들이 장소를 정의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는 '인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은 장소를 장소 그 자체보다는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현상학적으로 탐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장소는 '물리적 실체인 공간에 인간행위가 투영된 총체'라고 정의되는 것이 합당하다.

다음으로 장소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추상적인 공간에서 인간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띄게 된 곳을 장소라고 하였을 때,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특성을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어정연, 여홍구, 2011, p. 25). 장소성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역시 장소에 대한 논의만큼 다양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장소

성', '장소감', '장소 정체성' 등 다양한 표현으로 장소성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성', '장소감', '장소 정체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장소성'을 정의한 대표적인 연구를 통해 장소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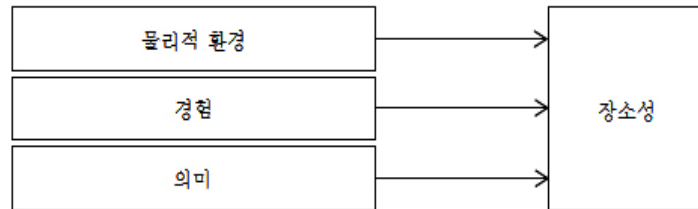
Relph(1976/2005)에 따르면 장소 정체성(identity of place)은 물리적 환경, 인간의 경험으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 사이의 상호 연관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이란 자연 환경 및 인공물이며, 의미는 인간의 의도와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고 옮겨질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포함한다(<그림 1> 참조).

Steele(1981, p. 12)의 장소성(the sense of place)은 물리적·사회적 환경(setting)에 대한 인간 반응의 패턴이다. 그러므로 스틸의 장소성은 인간이 환경과 조우하며 나타나는 감정, 인식, 행동 및 결과를 포함한 무의식적인 반응이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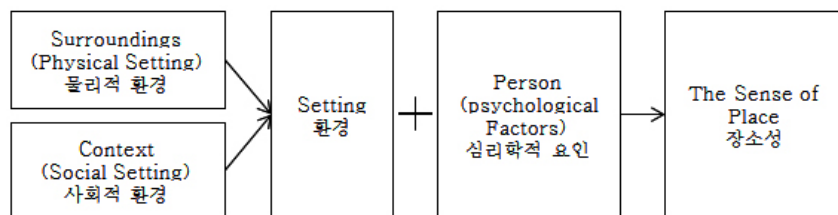
이석환과 황기원(1997, p. 180)은 소환경(setting)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장소 정체성, 소속장소애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여기

<표 1> 연구자에 따른 장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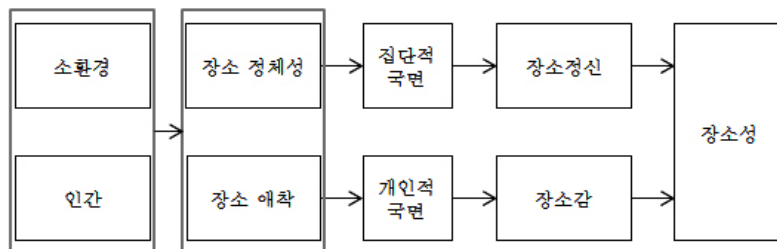
연구자	정의
Steele, Fritz	• 물리적인 위치, 심리적 상태, 사회적 지위, 심리적인 위치, 평가의 기준 등 단순히 지리적 위치 이상의 의미
Lukerman	• 위치, 자연과 문화적 요소의 통합, 역사·문화적 변화, 인간 행위에 의한 의미
May	• 환경을 경험하고 그것을 독특한 실재라고 구분하여 생각하게 되는 공간
Yi-Fu Tuan	• 추상적 공간에서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사소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공간
Edward Relph	•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중심,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의해 정의, 생활 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
이석환·황기원	• 물리적, 활동적, 상징적 국면의 복합개념
어정연·여홍구	• 물리적 실체와 인간 행위의 결합물이며, 상징적 대상



<그림 1> Relph(1976)의 장소성 형성 과정



<그림 2> Steele(1981)의 장소성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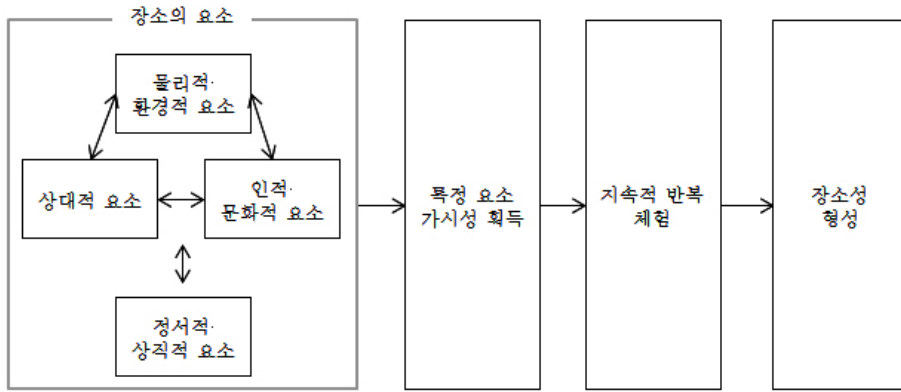


<그림 3> 이석환·황기원(1997)의 장소성 형성 과정

서 소환경은 땅의 분위기, 물리적 특성, 활동과 기능, 의미와 가치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러한 소환경에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접촉하며 경험할 때, 인간은 소환경에 대한 내 부성을 자각한다. 그리고 장소 정체성과 소속 감의 상호작용이 집단적 국면으로 나타나면 장소정신, 개인적 국면으로 나타나면 장소감이라 하였다. 그리고 장소정신과 장소감이 상호작용 하였을 때 장소성(placeness)이 형성된다고 하였다(<그림 3> 참조).

그러나 현대 도시에서 공간은 정체성의 공간

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경쟁하는 장이다(박세훈, 이영아, 2010, p. 74). 공간 또는 장소는 토지, 건축물 등의 그 자체로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공간의 독특한 환경, 문화·역사적 배경 등을 부각시켜 상품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장소 마케팅, 도시 브랜딩의 시도가 확대되었다. 장소 마케팅의 시각에서 백선혜(2004, pp. 16-37)는 장소를 물리적 실체와 인간행위가 인지되어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실체로 보았다. 그리고 장소성이란 이러한 장



〈그림 4〉 백선희(2004)의 장소성 형성 과정

소에 대해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특성을 뜻하며, 가시성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장소 마케팅의 도입으로 장소와 장소성 형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장소를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각을 위한 상품이자 마케팅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와 같이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마다 서로 상이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장소성의 요소를 제안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항목을 토대로 '물리적 환경 요소', '사회적 요소', '경험/인물 요소'로 장소성 요소를 구성한다.

첫째, 물리적 환경이란 전통시장의 지리적 범위 내의 가로(街路), 건물, 조형 등 공간을 구성하는 환경이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 사회활동은 예로부터 시장이 건물보다는 넓은 공간에 점포 또는 노점이 위치하거나 길을 따라 상점이 들어서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물리적 환경은 가로(街路)공간과 보행자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가로(街路)는 길과 도로 같은 선적 공간개념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시각적인 연속성과 공간에 의해 한쪽으로 갇힌 특성을 가진다. 또한, 보행자공간으로써 전통시장은 상품 매매와 통행을 돕는다. 보행공간은 가로(街路)와 같은 선적인 공간인 동시에 점과 면 형태의 광장 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로공간의 확장이다(박세연, 이석현, 2011, p. 180).

둘째, 가로공간은 사회구조, 생활방식, 도시그 자체 및 사람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박세연, 이석현, 2011, pp. 173-174). 그러므로 사회적 요소는 물리적 범위 안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요소는 전통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는 사적 또는 공적인 사회적 사건과 상호교류 등이다.

끝으로 경험/인물 요소란 사회적 요소 중에서도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의미 및 정서를 의미한다.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화 구성요소란 위와 같이 물리적 환경요소, 사회적 요소, 경험적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기록화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이하에서는 전통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기록화 구성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2.2 전통시장의 정의와 기능

### 2.2.1 전통시장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전통시장 대신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등록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재래시장이란 '예전부터 있어 오던 시장을 백화점 따위의 물건 판매 장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는 이전에 재래시장으로 통용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서는 2009년에 '재래시장'이란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통시장법에서는 2013년 전통시장의 정의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 때문에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sup>2)</sup>로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현대적인 상거래 형태와는 다르게 형성되었으며,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시장을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그리고 기타시장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등록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sup>3)</sup>로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 또 인정시장이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sup>4)</sup>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기타시장이란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시·군·구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임의로 분류한 시장을 말한다.

또한, 상권의 규모별로 전국상권시장, 광역시장, 지역상권시장, 근린상권시장으로 구분한다. 전국 상권시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 광역상권시장은 1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 지역상권시장은 시장이 소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 근린상권시장은 시장이 소재한 읍·면·동 또는 그 일부를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시장이다. 또한, 시장의 크기별로 시장 내 점포 수가 1,000개 이상인 곳은 대형시장, 500개 이상~1,000개 미만인 곳은 중대형시장, 100개 이상~500개 미만인 곳은 중형시장, 100개 미만인 시장은 소형시장으로 구분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3) 대규모 점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결 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곳, 세 항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상가 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종합하면 전통시장은 사전적·법률적인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였고, 백화점 등의 현대적 상거래와 달리 과거부터 내려온 역사·문화적인 장소이며, 상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통적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2.2.2 전통시장의 기능

앞서 언급되었듯,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장소성 정의 관련 요소들을 토대로 '물리적 환경 요소', '사회적 요소', '경험/인물 요소'의 세 가지 요소로 장소성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성 구성요소들은 일반적인 장소에 대한 것으로, 전통시장만의 고유한 장소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만의 고유한 장소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기록화 하기위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시장은 정의에서도 나타나듯 상품의 매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기능을 지니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보면 전통시장은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 특별한 장소이다.

둘째 전통시장은 '대중적 장소'이다. 전통시장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들의 상호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시장을 통해 상인, 이용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상품 매매, 교류, 정보교환 등 각자의 고유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해관계에 따라 상인회 등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용객들은 시장의 먹거리, 볼거리, 오락 등 오감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다양하게 경험한다. 이러한 대중적 장

소 기능에는 가로(街路), 정치, 공동체, 건축물, 오락/관광으로 기록화 요소가 구성될 수 있다.

셋째 전통시장은 '역사·문화적 장소'이다. 유서 깊은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과 함께 발전하였다.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 해당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모습도 유추할 수 있으며, 화재나 재해 등의 발생은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외형적인 모습을 변화시키고 시장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역사·문화적 장소 기능의 기록화 구성요소는 역사, 변화, 사건/사고가 있다.

넷째 전통시장은 '행정적 장소'이다. 전통시장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도시계획 등 행정변화에 따라 위치, 판매품목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육성시켜 발전한 전통시장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 장소마케팅, 시장 활성화 등의 이름으로 기존의 장소를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다. 행정적 장소 기능의 기록화 구성요소는 도시개발, 시장 활성화 사업, 일반 행정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전통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기록화 구성요소를 예시와 함께 정리해보면 <표 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대중적 기능은 가로, 정치, 공동체, 건축물, 오락/관광 등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의 물리적 활동의 근거 또는 활동 자체를 포함한다. 역사·문화적 기능은 역사, 변화, 사건/사고 등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사건과 변화의 요소를 포함한다. 경제적 기능은 거래 품목과 거래지역과 같이 상거래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며, 행정적 기능은 도시 개발, 시장 활성화 사

〈표 2〉 전통시장 기능 중심의 기록화 구성요소

기능	기록화 구성요소	예시
대중	가로	도로, 인도, 골목, 광장
	건축물	상점, 노점, 상점 내부, 조형물
	공동체	상인회, 지역모임 등
	정치	선거 유세
	오락/관광	이벤트, 축제, 전시회, 워크숍 등
역사·문화	역사	시장 설립 및 역사
	변화	시장 및 상점 증축 및 이전
	사건/사고	화재, 재해, 관련 역사 사건
경제	거래 품목	거래 품목, 농업 특산물, 산업특산물
	거래 지역	지역 내 및 타 지역 거래
행정	도시 개발	도시 개발에 따른 시장 변화
	시장 활성화 사업	아케이드 건설, 경영교육 등
	일반 행정	기타 시장 관련 인허가

업, 일반 행정 등 공공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전통시장의 기록화 사례를 통해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요인, 사회적 요인, 경험/인물 요인이라는 장소성 요소와 전통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을 때 어떠한 것들이 기록화 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3. 전통시장 기록화의 사례

#### 3.1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

##### 3.1.1 기록화 방안

서울약령시는 조선시대 보제원 인근으로 한약재 상인들이 모여든 것을 시작으로 경춘선 시발점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공설시장이 형성되었고, 이후 경동시장으로 이전하며 600 여 개에 점포가 들어설 정도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1995년 서울약령시, 2005년 서울약령시 한

방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는 2015년 서울산업진흥원의 지역재생 마케팅 개발 지원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주)어반플레이는 서울약령시의 잠재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웹 페이지를 구축 등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 사업의 진행 순서는 초기 준비단계-구체화 단계-사업 현실화의 3단계이다. 초기준비단계에서 (주)어반플레이 팀은 자문위를 섭외하고 인터뷰, 사진, 역사, 역초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구체화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을 아카이브 작업을 위해 항목별로 정리하여, 웹페이지 제작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상점별 스토리 역시 항목으로 만들었다. 생활 속 한의학 정보는 스토리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현실화 단계에서는 온라인 아카이브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한방상품의 유통과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였다. 아카이브를 통해 서울약령시의 다양

〈표 3〉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의 홈페이지 구성별 특징

홈페이지 구성	특징
약재의 삶 '살아오다'	약령시의 역사적 자료와 최근 방송에서 조명한 모습을 담음
시장이야기 '듣다'	약령시 내에 위치한 다양한 상인의 영업스토리와 일상을 위치기반 지도 및 영상으로 제작
시장사진첩 '보다'	약령시 내에서 볼 수 있는 용도와 쓰임새를 알기 어려운 기구, 기기, 완제품의 사진 및 스토리를 열람할 수 있는 섹션
약재이야기 '고르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한방 식재료들의 정보와 이야기를 열람할 수 있는 섹션

한 점포에 대한 정보 및 스토리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며, 홈페이지의 구성은 〈표 3〉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키워드(약재의 삶, 약재이야기, 시장이야기, 시장 사진첩)로 이루어져있다.

### 3.1.2 기록화의 특징

서울약령시 아카이빙 플랫폼의 구축은 시장 마케팅을 위해 아카이브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아카이브를 만들어 한약상의 다소 생소한 품목을 설명하고, 시장의 역사와 상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였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해 시장 이용자의 연령층을 넓히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그러나 먼저 웹 구축에 필요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하기만 했을 뿐 실제 자료들에 대한 관리 부족의 한계가 있다. 수집한 사진 속 자료들을 따로 모아 관리한 형태가 아니라 사진을 찍고 정보를 제공한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위치가 변경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있다. 이 사례의 또 다른 한계점은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치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버 유지비, 인력 등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 회사가 온라인 아카이브를 유지하고 업데

이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친숙해졌다고 해도 전통시장은 결국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이다. 그러므로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보았던 자료들을 실제로 볼 수 없으므로 생기는 괴리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3.2 대구 북성로 공구거리 '공구박물관'

### 3.2.1 기록화 방안

대구 북성로 주변지역은 대구역이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이 토지를 사들이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1906년 대구읍성 중 가장 먼저 헐리고 그 자리에 신작로가 들어서면서 북성로가 형성되었다. 당대 최고의 상업 중심지이자 최초의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시내버스노선이 들어오는 등 대구 근대화가 시작된 곳이다. 해방 후 미군부대로부터 나온 폐공구를 수집하며 공구골목이 형성되었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호황을 맞았다. 이후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나 점차 슬럼화가 시작되고 있다(권상구 외, 2014, pp. 146-147).

북성로 공구거리에서는 중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사단법인 시간과 공간 연구소 운영)가 2011년 4월 기증받은 <삼덕상회> 공구들을 중심으로 2012년에는 북성로 상가 번영회와 함께 북성로 일대에서 추가 공구 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2014년부터 기증받은 물품 2,000여 점을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도시민족지팀과 함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총 600여 점의 공구와 430여 점의 생활사 물품을 DB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기증받은 물건을 중심으로 공구거리 내에 공구박물관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북성로 기증 공구 목록화는 기증 공구 목록화 기획-공구·생활사 물품 세척 및 분류-목록표 작성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증 공구의 세척 및 목록화에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가 참여하였으며, 군수품 및 고물공구 등의 확인을 위해 공구거리 상인 2명이 자문으로 참여하였다. 목록표의 작성은 공구와 생활사 물품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북성로 기증 공구 목록화 보고서(2012)에 따르면 2011년 기증 공구는 크게 미군수품, 수공구, 와이어 용품,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에는 공구기증캠페인을 통해 총 10여 점의 공구를 기증받았다.

2011년에는 기증인의 구술사를 진행하였고, 2012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협력하여 목록화(기증 공구 총 633점, 생활사 물품 401점)를 진행하였다.

### 3.2.2 기록화의 특징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참여는 저조하였다. 이는 북성로 공구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상인들의 인식과 참여의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성로 공구거리 사례의 특이점은 기록물의 유형분류에 있다. 공구의 유형별 분류 기준은 크래텍책임에서 펴낸 <한국 공구·산업용품 종합 카탈로그> 2011년 판을 참고하였다. 또한, 정식 공구가 아닌 군수품이나 고물공구 등은 원래의 목적과 사용목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 북성로 공구전문가들의 자문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이 부분에서 전통시장 기록화에서 시장 상인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구 박물관의 특징은 실제적인 장소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공구 박물관의 페이스북에서 접한 내용을 실제로 방문하여 보고 느낄 수 있다.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근대건축물(1930년대 쌀 창고)을 개·보수하였기 때문에 북성로 일대의 근대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공구 박물관에서 기증품에 대한 상설전시 및 여러 주제로 기획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2층 규모로 기술자 작업실과 사무실을 재현해 놓았으며, 일제강점기 때의 공구, 베트남 파병 귀국박스 등도 전시 중이다. 또한, 공모전, 원데이 클래스, 공모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구거리의 장인들이 들려주는 북성로의 역사부터 젊은 예술인들의 원데이 클래스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북성로 공구박물관의 기증품 보존소는 현재 박물관 내 방 2개와 외부 보존소가 있다. 그러나 부피가 큰 공구가 많아 보존 공간이 부족하



〈그림 5〉 공구박물관 전경



〈그림 6〉 기획전시



〈그림 7〉 상설전시



〈그림 8〉 워크숍 & 원데이 클래스  
홍보포스터

다. 이에 기술예술융합소가 건립되면 그곳을 수장고로 사용할 예정이다.<sup>5)</sup>

### 3.3 광주 대인예술시장 아카이브 D

#### 3.3.1 기록화 방안

대인시장은 6.25 전쟁 이후 광주역 인근 공터

에서 시작되었다. 1969년까지 광주역은 물론 광주시청 등 지리적인 이점으로 1960~80년대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터미널과 광주역, 시청이 이전되며 침체기를 맞았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며 시장의 경쟁력은 약해졌다. 그러나 2008년 광주비엔날레를 기점으로 현재의 대인예술시장으로 성

5) 공구박물관 담당자 인터뷰, 2016년 12월 9일, 대면인터뷰.

장하였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던 '복덕방 프로젝트' 작업은 재래시장이 문화와 예술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프로젝트 당시 지역작가들이 짝값에 시장의 빈 점포를 작업실로 사용하며 시장 상인과 예술가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후 예술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상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예술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아카이브 D 프로젝트'는 2015년도 사업단인 전라도지오그래픽 별장사업단이 진행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동안 대인시장이 대인 '예술' 시장으로 변모해가면서 축적된 유무형의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관, 서비스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자료수집 및 분류, 샘플북 기획 및 조사, 홍보 엽서 제작, 라이브러리 준비 등이 이루어졌다.

대인 예술시장 아카이브 D 사업의 기록화는 기록화 주제 선정-자료 수집 및 분류-아카이브 공간 마련과 수집자료 활용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기록화 주제 선정 단계로 관련 학과 및 아카이브 사업 유경험자들로 전담 사업팀을 구성하였다. 2단계는 자료수집 및 분류단계로 수집 범위는 2008년 이후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팀이 진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유·무형의 자료와 인터뷰, 영상, 기록 사진과 같은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서 이전 프로젝트팀과의 자문회의와 직접방문을 통해 자료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기록화 대상 중 하나인 벽화와 관련해서는 작가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이전 사업단으로부터 195개의 자료를 기증 및 임대받았으며, 관련 도

서와 자료를 구입하였다. 자료의 분류는 시간, 공간, 주제, 자료의 형태, 주제에 따른 분류를 하였다. 3단계는 아카이브 공간 마련과 수집자료 활용단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별 아카이브 샘플 북 및 엽서를 제작하였다. 아카이브 공간은 보존과 사무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수장고 성격의 공간과 자료 전시와 열람을 위한 책방(library) 형식의 아카이브\_D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아카이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3.3.2 기록화의 특징

대인예술시장 아카이브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팀 자체를 시장의 역사로 간주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점이다. 2008년도 이후 문화관광청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별장프로젝트'의 사업은 그동안 사업단이 계속 교체되었다. 어쩌면 단절되고 일회성 이벤트로 지나가버릴지도 모르는 사업단의 운영들을 기록물로 인식하고 수집, 분류, 보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비록 사업단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이지만 결국 대인시장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장소와 관련한 기록으로써 그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기록화 후 전시와 열람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그 형태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책방의 형태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또 하나의 콘텐츠로써 아카이빙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단이 매년 교체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회적인 이벤트로 마감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아카이빙



〈그림 9〉 아카이브\_D 라이브러리 공간의 현재 모습

사업 자체의 목적은 바람직하였으나 다음 사업 단에게 그 목적과 가치가 계승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아카이브D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는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 3.4 사례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4가지 기능(대중적 기능, 역사·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장소성 즉 '물리적 환경 요소', '사회적 요소', '경험/인물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유, 무형 자료들을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기록화 사례들을 전통시장의 기능 측면과 장소성 요소 측면에서 기록화 구성요소들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약령시의 경우 위치, 한약방, 당제원 등 점포, 한약재, 약재를 다루는 기구, 상인 인터뷰 등 물

리적 환경, 시장 특성과 관련한 요소가 주를 이루었다. 북성로는 점포의 변화 이력, 생활사, 공구, 영수증, 사업신고 등 물리적 환경, 사회, 행정과 관련한 요소가 있었다. 대인시장의 경우 벽화, 출판물, 사업관련포스터, 리플릿, 엽서, 인터뷰 등 물리적 환경, 경제 등과 관련한 요소가 있었다.

〈표 4〉를 통해 앞서 〈표 2〉에서 제시하였던 구성요소와 예시 이외의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대중-물리적 환경요소에서 점포의 위치, 벽화 등 상점의 외부 모습, 경제-사회적 모습에서 상점 관련 도구, 영수증 등 생활사 물품, 행정-사회적 요소에서는 상점사업신고서 등의 추가적인 요소와 예시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경험적 요소에서 상인, 前 사업단 인터뷰 등 시장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인터뷰는 구술채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은 일반 사람들을 통해 역사의 이면과 맥락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표 4〉 사례 시장들의 기록화 구성 요소

사례시장	기능	물리적 환경	사회	경험/인물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	대중	점포 위치*	-	상인 인터뷰
	역사·문화	-	타임라인	
	경제	-	거래 품목, 약재 도구*	
	행정	-	-	
대구 북성로 공구박물관	대중	-	-	상인 인터뷰
	역사·문화	점포 변화	생활사*	
	경제	-	거래품목	
	행정	-	상점사업신고	
광주 대인예술시장 아카이브 D	대중	벽화*	출판물*	예술가, 전 사업단 및 관련인 인터뷰
	역사·문화	-	작품, 설치물	
	경제	-	사업관련자료	
	행정	-	-	

돕고, 제한적인 문헌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또한, 현재의 사회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평가과정에서 문자로 된 기록의 결락을 보완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맥락 확보의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기록학연구센터, 2015, pp. 79-81). 구술기록의 증거적, 정보적 가치를 인정하며 기록학계에서는 기관의 목적에 맞춰 구술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록화 대상인 전통시장 역시 대부분의 시장에서 기록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결손 부분에 대한 구술채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험적 요소에 인물 항목을 추가하여 경험·인물 요소로 변경하였다.

#### 4. 전통시장 장소성 기록화 구성요소 제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된 전통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 요소들의 기

록화 구성요소는 〈표 5〉와 같이 정리, 제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표 5〉에서 제시된 기록화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장소성을 기록화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4.1 대중적 기능과 관련한 요소

대중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별 기록화를 위한 세부구성요소들을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은 가로(街路), 건축물, 지리적 위치라는 시리즈를 가진다. 가로(街路)는 시장의 길을 의미하며 도로, 인도, 골목, 가로(街路)가 교차하며 형성되는 광장 등을 포함한다. 건축물은 시장 내의 건물부터 건물의 자재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장소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시대에 따른 시장 건축물의 변화이력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지리적 위치는 지표상의 위치를 나타내며 시장이라는 물

〈표 5〉 전통시장 기록화 구성요소

기능	요소	세부요소
대중적 기능	물리적 환경	가로, 건축물, 지리적 위치
	사회적 요소	공동체, 정치, 오락/관광, 출판물
	경험/인물 요소	경험 기술, 인물
역사·문화적 기능	물리적 환경	변화, 건축물
	사회적 요소	역사, 사건/사고
	경험/인물 요소	경험 기술, 인물
경제적 기능	물리적 환경	상점
	사회적 요소	거래 품목, 거래지역, 도구
	경험/인물 요소	경험 기술, 인물
행정적 기능	물리적 환경	건축물
	사회적 요소	도시개발, 시장활성화, 일반행정
	경험/인물 요소	경험 기술, 인물

〈표 6〉 대중적 기능과 장소성의 기록화 구성 세부요소

기능	요소	세부요소1	세부요소2	세부요소3
대중적 기능	물리적 환경	가로	가로	도로, 인도, 골목, 광장, 위치 등
		건축물	건축물	상점, 노점, 벽화, 조형물
			건물 자재	건축 자재, 외형 및 내부
	지리적 위치	위치	상점의 지표상 위치	
	사회적 요소	공동체	공동체	상인회, 지역모임 등
		정치	정치	선거 유세
		오락/관광	행사	축제, 전시회, 공모전 등
			교육	워크숍, 강연, 포럼 등
	출판물	구분	단행본, 보도자료, 연구물헌 등	
	경험/인물 요소	경험 기술	상인	점포 상인, 노점 상인, 배달원 등
			이용자	지역민, 타 지역민, 관광객 등
			연구자	향토사학자, 사회연구가, 건축가 등
		인물	공직자	시장 및 기록화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역사적 인물			대통령 선거 등 시장 방문 공무원 기타 역사적 인물	

리적 범위 내에서 상점이 차지하는 장소를 보여준다. 이 위치는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의 분포, 많은 위치 중 이 지점에 상점이 생긴 원인 등 부수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사회적 요소의 시리즈는 공동체, 정치,

오락/관광, 출판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관계의 묶음이다. 공동체는 상인회, 상인들의 출신 지역 모임 등의 관계, 정치는 대통령 및 공직자들의 선거 유세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관계, 오락/관광은 각종 행사와 교육

을 통해 시장과 참가자 또는 관광객과의 관계에 대한 집합이다. 출판물은 시장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비대면적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자료이다. 출판물의 세부요소2는 출판물이 상인회와 관련한 것인지 또는 상품과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의미한다.

셋째 경험/인물요소는 경험 구술과 인물이라는 시리즈를 가진다. 경험 구술은 상인, 이용자, 연구자, 공직자를 다시 세분화되어 각 요소에서 인물들의 구술인터뷰를 채록하여 수집함으로써 생산한다. 인물은 공직자와 역사적 인물로 나뉘며 시장과 관련한 이들의 생애 또는 소장 자료를 수집한다. 기능요소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찾아 관련 이야기를 구술채록하거나 직접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자료에서 누락되었던 이야기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기록할 수 있다. 경험·인물 요소와 그 이하의 요소들은 나머지 3가지 장소적 기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4.2 역사·문화적 기능과 관련한 요소

역사·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별 기록화를 위한 세부구성요소들을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첫째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시리즈는 변화이다. 변화는 상점과 시장의 신축, 증축 등 여러 형태의 시장의 변화 이력에 대한 변화 이력의 묶음이다.

둘째 사회적 요소의 시리즈는 역사, 사건/사고로 나뉜다. 역사는 시장의 형성과 발전 관련 기록, 사건/사고는 재난, 재해,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다.

#### 4.3 경제적 기능과 관련한 요소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별 기록화를 위한 세부구성요소들을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경제적 장소 기능에서 첫째 물리적 요소의 시리즈는 건축물과 가로이다. 시장은 건축물인 상가, 상점 등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상점이 없이 임시건물인 노점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 요소의 시리즈는 거래 품목, 거래 지역, 도구가 있다. 거래 품목은 지역 특산

<표 7> 역사·문화적 기능과 장소성의 기록화 구성 세부요소

기능	요소	세부요소1	세부요소2	세부요소3
역사·문화적 기능	물리적 요소	변화	변화이력	상점·시장 신축, 증축 등
	사회적 요소	역사	역사	시장 형성·발전, 주판 등
		사건/사고	재난, 재해, 사건	재난, 재해, 역사적 사건 등
	경험/인물 요소	경험 구술	상인	점포 상인, 노점 상인, 배달원 등
			이용자	지역민, 타 지역민, 관광객 등
			연구자	향토사학자, 사회연구가, 건축가 등
			공직자	시장 및 기록화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인물	공직자	대통령 선거 등 시장 방문 공무원
			역사적 인물	기타 역사적 인물

〈표 8〉 경제적 기능과 장소성의 기록화 구성 세부요소

기능	요소	세부요소1	세부요소2	세부요소3
경제적 장소	물리적 요소	건축물	건축물	시장, 상가, 상점 등
		가로	가로	시장, 상점, 노점 등
	사회적 요소	거래 품목	상품	지역 특산물, 시장 지구별 주요 매매 품목
		거래 지역	지역 및 타 지역 거래	통계조사 등
		도구	도구	주판, 계산기 등 주요 도구
	경험/인물 요소	경험 기술	상인	점포 상인, 노점 상인, 배달원 등
			이용자	지역민, 타 지역민, 관광객 등
			연구자	향토사학자, 사회연구가, 건축가 등
			공직자	시장 및 기록화 관련 무 수행 공무원
		인물	공직자	대통령 선거 등 시장 문 공무원
역사적 인물	기타 역사적 인물			

물, 지구단위로 나뉜 시장의 주요 매매 품목에 대한 기록의 집합이다. 거래지역은 지역 및 타 지역과의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파일의 집합으로 통계조사와 같은 기록들을 포함한다. 도구는 주판, 계산기 등 매매 등 시장에서 사용되는 도구 및 공구에 관한 기록이다.

#### 4.4 행정적 기능과 관련한 요소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의 네 가

지 구성요소별 기록화를 위한 세부구성요소들을 정리해보면 〈표 9〉와 같다.

행정적 기능은 첫째 물리적 요소의 시리즈로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은 공공분야의 지원으로 세워진 건축물 또는 조형물에 관한 기록의 집합이다. 둘째 사회적 요소의 시리즈는 시장활성화사업, 일반 행정이다. 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설현대화 등의 활성화사업의 내용을 하위 체계로 가지며 이때 건물 사업공고, 사업 보고서 등이 있다. 일반 행정은 기타 사업 공문, 상

〈표 9〉 행정적 기능과 장소성의 기록화 구성 세부요소

기능	요소	세부요소1	세부요소2	세부요소3
행정적 장소	물리적 요소	건축물	건축물	(공공분야 지원으로 세워진)건축물, 조형물
		도시 개발	시장 변화	시장 위치 변화, 시장 명칭 변화
	사회적 요소	시장활성화사업	사업종류	사업 공고, 사업 보고서
		일반 행정	기타 행정	기타 사업 공문, 상점사업신고서
		경험/인물 요소	경험 기술	상인
	이용자			지역민, 타 지역민, 관광객 등
	연구자			향토사학자, 사회연구가, 건축가 등
	공직자			시장 및 기록화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인물	인물	공직자	대통령 선거 등 시장 방문 공무원
			역사적 인물	기타 역사적 인물

점사업신고서와 같은 공공행정과 관련하여 개별 상점 또는 상인회가 가진 기록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기록이다.

## 5. 결 론

기록되지 못한 기억은 사라지거나 변형되어 본래의 의미와 형태를 잃어버린다. 또는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취사선택된 기록”이라는 콜링우드의 말처럼 본래 그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는 않으나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문서, 벽화 등의 형태로 남겨진 과거를 통해 우리는 앞선 시대를 유추할 수 있다.

장소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화하는 것은 장소 자체뿐만 아니라 그곳을 시장, 마을, 골목 등 특정한 장소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삶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장소는 여러 개인들의 삶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 및 그와 관련한 인간 활동의 자료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중요 자료이다. 인간의 경험과 행위가 한 전통시장을 다른 시장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준다. 반대로 전통시장이라는 장소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조직의 역사와 문화 같은 고유한 성격을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장소는 산업화, 도시재개발, 화재, 인간의 이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장소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가치와 인간의 역사도 사라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장소적 가치와 장소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통시장의 장소성과 기록화를 위한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네 가지 기능인 대중적 기능, 역사·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장소성 요소인 물리적 환경요소, 사회적 요소, 경험/인물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유·무형자료들을 기록화 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화라는 판단하에 각각의 기능별 장소성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화 세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소성 및 기록화 구성요소를 구하는 데 있어 문헌연구에 기초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장에 대한 장소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즉 각 시장마다 상인, 이용자 등 사람들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설문기법과 같은 방식으로 정확한 장소성을 도출하여 각 전통시장마다의 특성이 반영된 인물요소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시된 기록화 요소들을 토대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화가 이루어지고,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전통시장의 기록학적 가치를 인식하고, 시장의 기능에 입각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기록화 요소를 구상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권순명, 이승희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김성훈 (2006). 한국의 정기시장: 5일시장의 구조와 기능.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세훈, 이영아 (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71-101.
- 백선훈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한국과 미국 소도시의 문화예술 축제를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백승혜 (2011). 도시개발지역의 기록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서울약령시스토리아카이브. 검색일자: 2017. 10. 5. <http://www.yakstory.com/>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 설문원 (2012 a).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 설문원 (2012b).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김정현 (2013). 공간중심의 연계형 기록화의 실행방안: 부산지역 동해남부선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36, 233-26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통통. 검색일자: 2017. 10. 5. <http://www.sijangtong.or.kr>
- 어정연, 여홍구 (2011). 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 국토계획, 45(2), 21-34.
- 여진원, 장우권 (2015). 도시 기록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실험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575-598.
- 이보옥 (2012). 골목의 장소성 재현을 위한 기록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이석환, 황기원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69-184.
- 이용선, 국승용, 정은미, 조경출 (2007). 정기시장의 구조와 기능 변화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의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2015). 구술기록관리 방법론 연구. 경기도: 도서출판 디로드.
- Cox, Richard J. (1996).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of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s Curators. Chicago: Scarecrow Press.
- e뮤지엄. 검색일자: 2017. 10. 5. <http://www.emuseum.go.kr/main>
- Lukermann, F. (1964). Geography at a formal intellectual discipline and the way in which it contributes to human knowledge. Canadian Geography, 8(4), 167-172.
- Relph, Edward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서울: 논형. (원전 발행년 1976).
- Steele, Fritz (1981). The Sense of Place, Boston: CBI Publishing Company.
- Tuan, Yi Fu (2007). 공간과 장소. (심승희, 구동희 역). 서울: 대운. (원전 발행년 197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Seung Hye (2011).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Osan. Korea.
- Baik, Seonhae (2004). The intentional formation of placeness in place marketing strategy: a cast study of art festivals at small cities in Korea and the 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eMuseum. Retrieved October 5, 2017, from <http://www.emuseum.go.kr/main>
-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enter of Archive Studies (2015). Oral Archives Management Methods. Kyunggi-do: Droad.
- Kim, Sunghoon (2006). Korean Periodic Markets. Seoul: KREI.
- Kwon, Soon-Myung & Lee, Seung-Hwi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1, 41-84.
- Lee, Bo Ok (2012). Representation of Placeness for Docume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Lee, Seok-Hwan & Hwang, Ki-Won (1997). The Ambiguous Concepts of Place and Placeness. Journal of Country Plan, 32(5), 169-184.
- Lee, Youngsun, Kook, Seungyung, Jung, Eunmi, & Cho, Kyungchul (2007). Study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al Changes of Periodic Markets, Seoul: KREI.
- Park, Se Hoon & Lee, Young A (2010). Spatial Agglomeration and Politics of Place Identity of Korean Chinese: A Case of Garibongdong.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3(2), 71-101.
- Relph, Edward (2005). Place and Placelessness (translated by Kim, Duk Hun, Kim, Hyun Ju, & Sim, Seung Hee). Seoul: NonHyung. (first publication in 1976).
- SEMAS Traditional Market TongTong. Retrieved October 5, 2017, from <http://www.sijangtong.or.kr>
- Seol, Moon-Won & Kim, Jeong-hyeon (2013). Implementing Sp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for Donghae-Nambu Railway Areas in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6, 233-269.
- Seol, Moon-Won (2011).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207-230.
- Seol, Moon-Won (2012 a). Designing a Space-based Locality Documentation Model. Korean

-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37-455.
- Seol, Moon-Won (2012 b).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2, 3-44.
- Seoul Yangnyeongsi Story Archive. Retrieved October 5, 2017, from <http://www.yakstory.com/>
- Tuan, Yi Fu (2007). *Space and Place*. (translated by Sim, Seung Hee & Gu, Dong Hee). Seoul: Daeyun. (first publication in 1976).
- Uhr, Jeong-Yeon & Yuh, Hong-Koo (2011). A Study on Place Value on the Notion Place. *Journal of Country Plan*, 45(2), 21-34.
- Yeo, Jin-Won & Chang, Woo-Kwon (2015). A Pilot Study on the Elements of Urban Document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575-598.

